

훈련량만큼은 최고... “우린 독종이다”

정재원 전체 순위 13위 훈련의 힘
곽현명 낙차 아픔 딛고 반전 성적
22기 양승원·황준하도 큰 존재감



19기 정재원 22기 양승원 17기 곽현명 22기 황준하

올 시즌 가파른 상승세로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다. 특선급의 떠오르는 4인방 정재원·양승원·곽현명·황준하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이들의 공통점은 팀의 중심점이 되는 특선급 강자와 비슷한 훈련량을 소화한다는 것이다”며 “부족한 재능을 노력으로 극복해 훈련량이 많기로 소문난 팀 내에서도 ‘독종’ 소리를 들을 정도이다”라고 전했다.

●정재원(19기, 33세)

19기 차석으로 졸업해 기대를 받았던 7년 차 선수다. 2015년 웨이트 훈련 도중 허리 골절 부상을 입었고, 단순 마크 추입에 의존하면서 데뷔 3년 차인 2016년 우수급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2017년 상반기 특별승급 이후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해 지난해부터 늦깎이로 S1반을 유지하고 있

다. 광명 18회차(5월 3~5일) 기준 전체 순위 13위(평균득점 종합 100.04), 연대율 50%, 삼연대율 73%로 상위권이다. 평범한 선수로 그칠 위기를 훈련을 거듭하며 일어섰다.

●양승원(22기, 29세)

아직 시드 배정을 받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강자들이 빠진 일요일 경주에서 3월 초 이후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5일 특선급 결승에서 그랑프리 3연패에 빛나는 슈퍼특선 정종진(20기, 32세)이 있는 수도권 팀을 상대로 선행해 4차를 기록하는 저력

을 발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체 순위 18위(평균득점 종합 99.54), 연대율 50%, 삼연대율 71%로 쌍복승, 삼복승에서 제외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슈퍼특선급이 없는 미원팀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곽현명(17기, 32세)

올해로 10년 차가 됐다. 2012년 부산경주에서 낙차로 안면과 코, 치아가 골절되며 선수 생명의 위기를 겪었다. 특선과 우수급을 오가던 평범한 선수로 특선급에서는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는 꼴짜 후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입상권 근접 세력으

로 떠오르더니, 올 시즌 초 상승세를 타며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3월 3일 부산경주에서 생애 첫 특선급 결승 우승도 기록했다. 전체 순위 21위(평균득점 종합 99.17), 연대율 52%, 삼연대율 71%. 2017년 동서울팀으로 훈련지를 옮긴 이후 슈퍼특선 정하늘, 신은섭 선수와 함께 훈련하며 실력이 늘었다.

●황준하(22기, 28세)

경륜에 입문했을 때 훈련원 14위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난해 상반기 연습 행진을 기록하며 특별승급으로 특선급에 진출했다. 특선급 데뷔 첫날 꼴짜를 했으나, 다음날 선행 2차, 마지막 날 선행 1차하는 이번을 기록했다. 최근 광명 18회차에서는 이를 연속 2차으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전체 순위 35위(평균득점 종합 98.67), 연대율 38%, 삼연대율 58%. 선행 레이스 대부분의 시속이 11초 초반 대를 형성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현재진행형 선수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사이클 꿈나무 육성 2억3000만원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부는 7일 2019 사이클 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한 기부금 2억3000만 원을 대한자전거연맹에 전달했다. 대한자전거연맹은 사이클 꿈나무를 대상으로 영재 육성 훈련캠프 개최하고 올림픽 꿈나무 육성 우수 및 취약 중고등학교 사이클팀 지원, 사이클팀 창단 학교 지원, 2020 아시아 트랙 선수권대회 우수 주니어 선수 특별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스피돔과 함께하는 나눔 축제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부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11일 광명 스피돔 야외광장에서 ‘스피돔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100인의 여름천사’라는 주제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위한 나눔상자 만들기,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 체험마당, 바자회,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바자회 등에서 나온 수익금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복지사업에 전액 후원될 예정이다.

중학생 대상 스피돔 방송실 체험 행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부는 9일 광명 중현중학교 학생들을 스피돔 방송실로 초청해 방송 재능기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카메라, 컴퓨터그래픽,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다양한 방송 직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 현장실습을 가졌다. 학생들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표력 향상, 프롭터 활용을 뉴스 진행, 경주 중계용 카메라와 컴퓨터그래픽 장비 운영 등 스피돔 방송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기광서는 1차 8회, 2차 5회, 3차 4회로 다승 12위에 오르며, 데뷔 후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늦게 핀 꽃 경정 11기 기광서 벌써 8승...개인 시즌 최다승

평균 0.24초...스타트 집중력 최고조



11기 기광서

2012년 입문한 경정 11기로 현재 활동 중인 13명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선수는 김응선(A1, 35세)이다. 하지만 올해 11기에서 가장 주목할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는 기광서(A2, 36세)다. 14일 기준으로 1차 8회, 2차 5회, 3차 4회를 기록하며 다승 12위에 올라 있다. 특히 4월 18일 열린 제 13회 스포츠월드배 대상경주에서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예선에서 전개가 불리한 6코스로 출전했지만, 특유의 스타트(0.09초) 집중력과 랭킹 2위 120만 모터를 활용해 휘감아찌르기로 1차했다. 생애 첫 출전한 대상경주 결승에서는 2코스에서 0.15초라는 좋은 스타트와 찌르기 전개로 1코스의 심상철(7기, A1)에 이어 2위로 끝냈다.

지난해까지 기광서의 성적은 초라했다. 데뷔 시즌인 2012년에는 33회 출전해 2차 1회, 3차 1회뿐인 성적을 보였다. 평균 스타트 0.34초로 신인치고는 그리 나쁜 스타트감은 아니었지만 1턴에서의 경주운영이

미흡해 고전했다. 이듬해 2013년에도 50회 출전에 3차만 3회 기록하며 2년 연속 단 1승도 달성하지 못했다. 경정선수 입문 3년 만인 2014년에야 비로소 첫 승을 거두면서 56회 출전해 6승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74회 출전에 4승을 거두었으나 2016년에는 플라이(F) 실격과 함께 24회 출전, 3차 3회로 부진했다. 그나마 2017년 7승, 지난해 8승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광서는 데뷔 후 동기생들보다 아주 늦은 첫 승을 신고했지만, 안정적인 스타트(2012~2019년 평균 스타트 0.24초)를 보

여 발전 가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비로소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벌써 8승을 거두며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경정고수’ 이서범 예상분석 전문가는 “경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 으뜸이 다른 선수를 압도하는 스타트인데 신인시절부터 보여준 기록 없는 스타트감을 보면 기광서는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단점으로 생각하는 1턴 전개만 보완된다면 올 시즌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선수다”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TRAINING WEAR SET

여름을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 반팔·반바지 트레이닝복 세트

썸머 쿨링 트레이닝 상하 2세트 총4장 39,800원

때로는 일상복으로
때로는 운동복으로

1번형 네이비

2번형 그레이

3번형 블루

4번형 멜랑지

5번형 블랙

바다, 산, 계곡, 야영장 등 피서지에서 입기에 안성맞춤 시원한 기능성 소재인 쿨링원단 사용으로 체온은 유지되고 땀에 의한 습기는 배출되는 우수한 통기성을 지닌 제품이다. 탁월한 착용감과 땀이 있는 핏으로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다. 부드러운 원단으로 활동성을 높였고 여러 이터넬과 잘 어울려 다양한 코디를 가능하게 한다. 스포츠 활동 및 일상복으로 여름철에 제격이다. 반바지 또한 신축성·탄력성·복원성이 탁월한 인체 스핀 소재 사용으로 착용감과 통기성이 우수하며 장시간 착용시에도 형태 안정성이 뛰어난 합성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다. 허리부분에는 고무밴드 처리로 신축성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스포츠·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복으로도 여름철에 착용할 수 있다. 제품 불만족시 100% 교환, 환불 보장한다. 여름맞이 런칭기념 행사로 한 세트 가격에 한 세트를 더드리는 파격행사 중이다.

사이즈 95, 100, 105, 110
상하세트 1+1 ₩18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